

TEAM ICE

컴퓨터공학과 2019112546 서희찬  
산업시스템공학과 2018112480 김성준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017112636 오준서

# 2023학년도 해외학술탐방 결과보고서



Report

Academic Tour

# 01. 서희찬, 김성준, 오준서

# 항공권 사본

##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KIM/SEONGJOONMR  
 •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9883207947973  
 •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OZ) 53KPW8 (1B) YGRHAW

###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 OZ 212 ASIANA AIRLINES

※ 해당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제1 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SEOUL INCHEON INT	26JAN 20:50	TERMINAL 1	ECONOMY/S		CONFIRMED
도착	SAN FRANCISCO	26JAN 14:00	INTERNATIONAL TERMINAL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Validit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2PC 운임(Fare Basis) : SLXKU y) : Not Valid After 26JAN25

#### OZ 201 ASIANA AIRLINES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LOS ANGELES	07FEB 11:00	TOM BRADLEY INTL TERM	ECONOMY/S		CONFIRMED
도착	SEOUL INCHEON INT	08FEB 17:30	TERMINAL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Validit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2PC 운임(Fare Basis) : SLXKU y) : Not Valid After 26JAN25

##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SEO/HUICHANMR  
 •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9883207947974  
 •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OZ) 53KPW8 (1B) YGRHAW

###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 OZ 212 ASIANA AIRLINES

※ 해당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제1 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SEOUL INCHEON INT	26JAN 20:50	TERMINAL 1	ECONOMY/S		CONFIRMED
도착	SAN FRANCISCO	26JAN 14:00	INTERNATIONAL TERMINAL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Validit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2PC 운임(Fare Basis) : SLXKU y) : Not Valid After 26JAN25

#### OZ 201 ASIANA AIRLINES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LOS ANGELES	07FEB 11:00	TOM BRADLEY INTL TERM	ECONOMY/S		CONFIRMED
도착	SEOUL INCHEON INT	08FEB 17:30	TERMINAL 1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Validit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2PC 운임(Fare Basis) : SLXKU y) : Not Valid After 26JAN25

FRI, JAN 26, 2024 INTL - VERIFY PASSPORT virgin atlantic

**Junseo Oh** BOARDING PASS  
CJ4UCE

LHR ▶ SFO

LONDON-HEATHROW (LHR) ▶	BOARDING	GATE	ZONE	SEAT	Depart	
San Francisco (SFO)	12:10	-	GROUP9	66D	Fri, 13:05	
FLIGHT VS19		Terminal 3		Economy Light (T)	Arrive	Fri, 16:15

\*Gates may change. Check airport monitors. FLYRDY

Ticket#: 932 3208970568 LHR174

승객성명 Passenger Name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OH/JUNSEO MR	3509226407933	0153-6965

**로스앤젤레스 LAX**  
 Los angeles intl Terminal No: B  
**Tom Bradley Int'l**  
 07FEB24(WED)09:50 (Local Time)

예약종류 Class: F(Economy)  
 운임 Fare Basis: FOYS  
 수하물 Baggage: 2PC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1  
 08FEB24(THU)16:10 (Local Time)

예약상태 Status: OK (Confirmed)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07FEB24 - 07FEB24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87-9

**YP0102**  
 예약번호: P86GST  
 Operated by YP AIR PREMIA

비행시간 Flight Time: 13시간 20분

02.

# 예산 사용 내역

지중해 밥집	식비	63586
골든게이트→숙소 택시비	택시	38826
아메리카노	식비	8173
도넛3개	식비	8752
대용량 버드와이저	식비	5421
샌프란 공항 →숙소	택시	28850
숙소 → 골든게이트	택시	38826
우버 이츠 팁	식비	6123
우버이츠 피자	식비	55711
양주+제로콕	식비	55023
맥날 → 숙소	택시	23803
맥날-준서	식비	6500
맥날-희찬	식비	5500
맥날-성준	식비	2000
교포 마트	식비	13041
가게앞 타코	식비	13373
→애플파크	택시	19595
스타벅스	식비	23843
하빗 햄버거	식비	60255
데니스	식비	77652
→도메인호텔	택시	27916
→ 산호세 숙소	택시	68819
열에이 숙소	숙소	341400
샌프 → LA	비행기	209600
아침 택시 → 샌프란	택시	90888
콜라,사이다,물	식비	13954
트레이더 조-저녁	식비	56153

아이스크림	식비	14444
라이트하우스-배타고 간곳	식비	160241
페리비용	배	115197
페리타기전-빵	식비	25111
pear39 → 톨로레스 파크	택시	21280
유니온 스퀘어	택시	13291
유니온 스퀘어 → 숙소	택시	93039
인앤아웃	식비	42586
인앤아웃 → 숙소	택시	37227
판다익스프레스	식비	41925
스탠포드→구글	택시	37470
uber eats pending	식비	5448
필즈커피	식비	17989
집 → 필즈커피	택시	48137
트레이더조 → 숙소	택시	34685
콜라, 물		9055
트레이더조		98718

03.

# 일정 계획

- 01/26 San Fransisco 공항 도착  
Golden Gate Bridge 방문
- 01/27 San Fransisco ▶ San Jose 이동  
Neurosky CTO 이구형 박사님, San Jose State University 박태호 교수님  
Interview  
Apple park 방문
- 01/28 Silicon Valley Web Developer 인턴 유시은 양 Meet up  
San Jose ▶ San Fransisco 이동  
Sausalito 방문  
Pier 39 방문  
Dolores park 방문 및 유시은 양 Interview  
Union Square 방문 및 Trader's Joe 쇼핑  
San Fransisco ▶ San Jose 이동
- 01/29 Stanford University 방문 및 재학생 Interview  
Google Headquater Visitor Center 방문
- 01/30 San Jose ▶ Los Angeles 이동
- 01/31 Los Angeles ▶ Grand Canyon 투어 출발  
Arizona State Grand Canyon 방문
- 02/01 Lower Antelope Canyon 방문  
Utah State Zion Canyon 방문  
Nevada State Las Vegas 이동

03.

# 일정 계획

TEAM ICE

02/02

Las Vegas North Outlet 방문  
Las Vegas ▶ Los Angeles 이동

02/03

Universal Studio 방문  
Hollywood park 방문  
Griffith Observatory 탐방

02/04

Disneyland 방문  
Stussy L.A 지점 방문 및 쇼핑

02/05

Palace L.A 지점 방문 및 쇼핑  
Trader's Joe 방문 및 쇼핑

02/06

The broad Museom 방문  
The Grand Central Market 방문 및 식사  
The Last bookstore 방문 및 자유 독서

02/07

Los Angeles ▶ Incheon 귀국행 비행기 출발

# San Jose

**Neurosky CTO 이구형 박사님**  
**San Jose State University 박태호 교수님**

Silicon Valley 창업 문화와 마인드셋에 대한 Interview

<https://south-kryptops-4ca.notion.site/1-27-Meet-up-in-San-Jose-b36bfa8ff2874ddd41a5a43a0bf8b25?pvs=4>



# San Jose

## 서희찬

창업의 성지 "실리콘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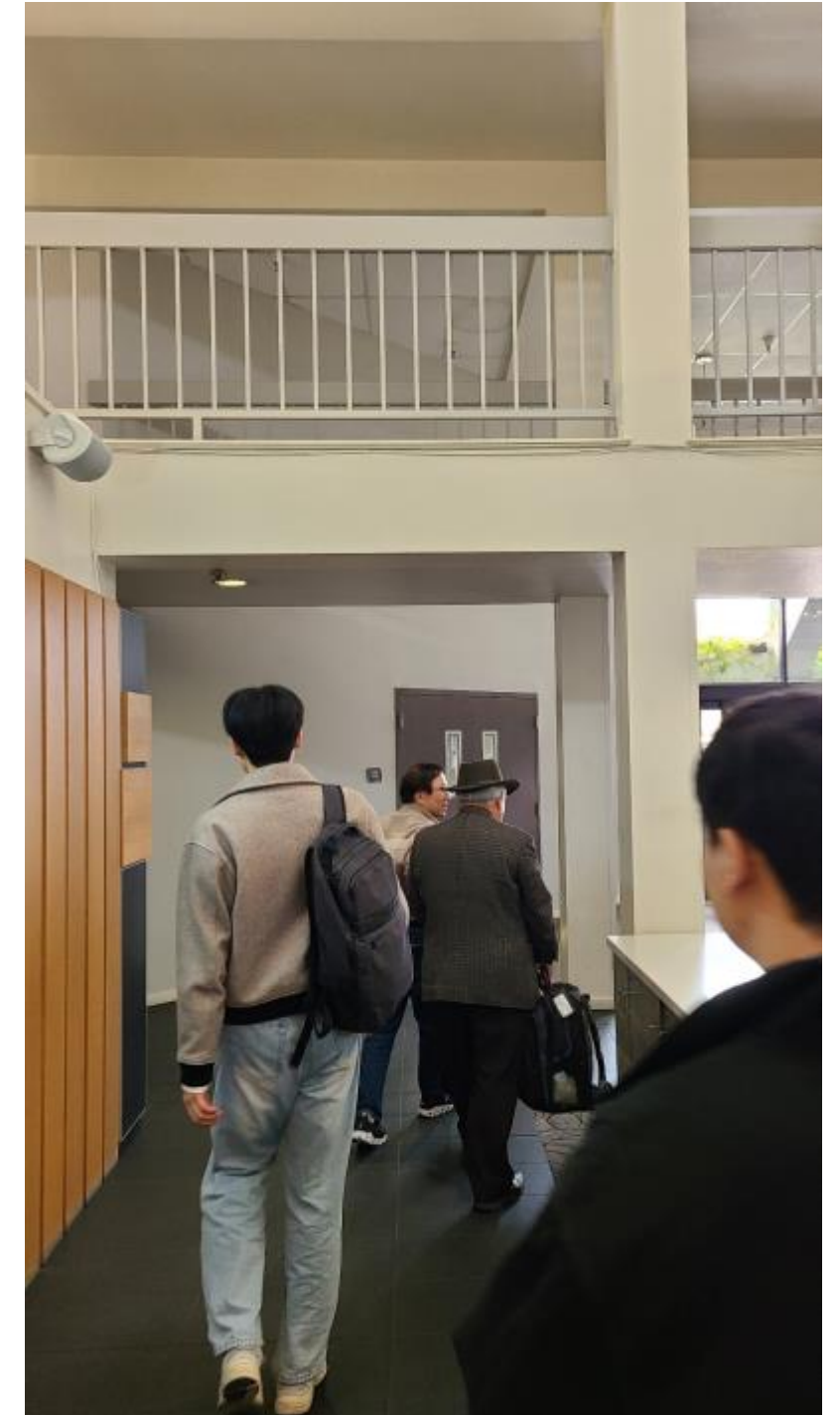
사실 산호세를 오기전까지 실리콘벨리라는 이름의 지역이 있는줄 알았지만, 방문하고 실리콘벨리는 수식어 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이런 수식어의 주인공 중 2분인 박사님과 교수님을 뵈서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토론하며 창업이란것을 이야기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과 박사님이 주고 받는 대화가 하나하나 소중했다. 장난으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원래 30분 미팅 요청하면 0000불 받아야해~ 와 같이 장난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김성준

창업가 정신이란 잡담 중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빌딩을 하는 것이었다. 왜 우리는 사업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그만큼 포기해야할 게 많았고, 감내해야할 게 많았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실리콘밸리처럼 빅테크 기업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만큼의 환경을 조성해야하지 않을까? 언젠간 서울도 산호세처럼 글로벌 창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 오준서

2022년 산호세 주립대 실리콘밸리 창업 연수를 인연으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다시 뵈 수 있어 기분이 묘했다. 2024년 해당 연수가 끝나는 날이었음에도 흔쾌히 Meet up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했다. 실리콘 벨리에서 뇌공학 분야 Neurosky, Inc. 를 창립하신 이구형 박사님의 경우 과거 연수 당시에도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 창업 불모지였던 과거 미국으로 넘어와 하나의 기업을 세우기까지 그 외롭고 힘들었을 과정을 겪어온 분이 전해주는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고 싶었다. 여전히 냉철하시면서 교수님과 빼 있는 장난도 주고받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 Apple park

Apple Headquarter sector  
Visito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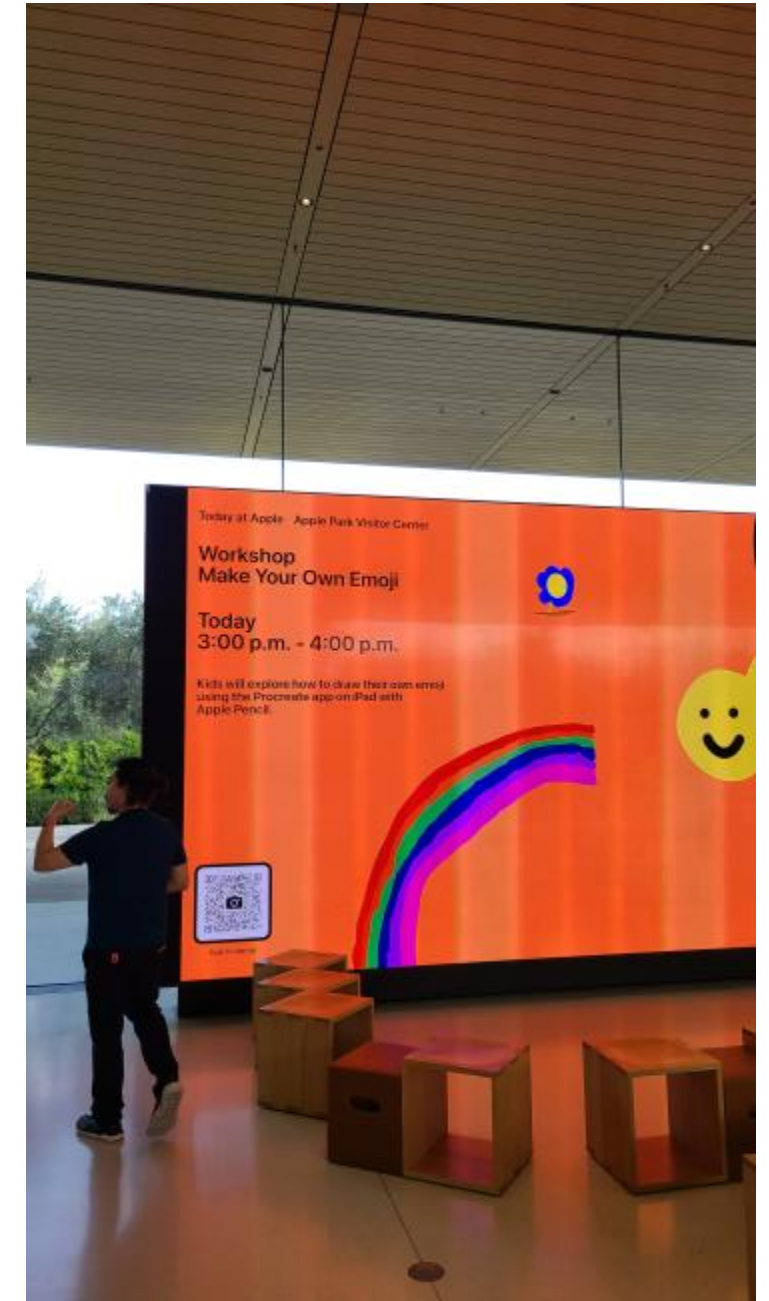
## 서희찬

애플스러움

애플이 왜 애플일까?

단순하지만 거기서 오는 미학이 애플을 애플답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매니아층 구성에 성공하고 그에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애플의 본사 앞 비지터 센터에 방문하여 애플직원의 세션을 듣고, 애플 파크를 AR로 보며 광활함과 위엄을 느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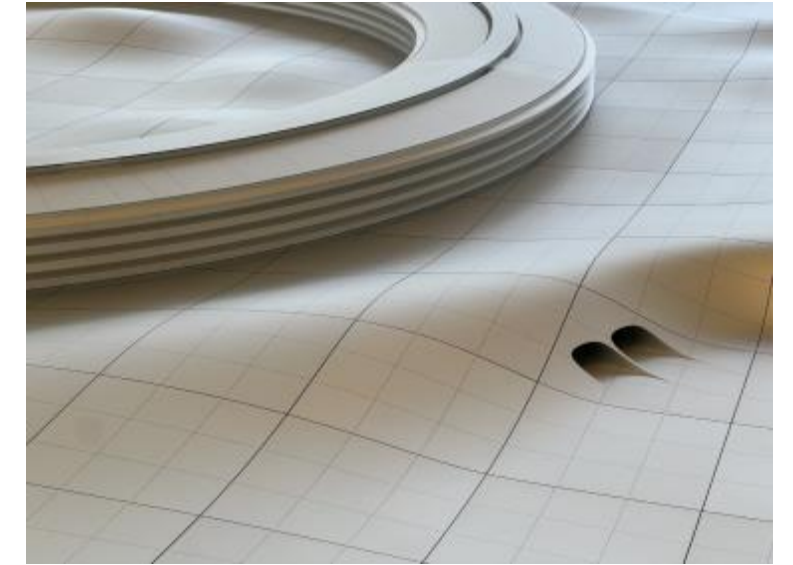
# Apple park

## 김성준

Apple은 전세계의 MZ를 어떻게 파고들 수 있었을까?  
무수한 고민이 남는다. 이 또한 혁신과 몰입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비지터 센터를 방문하면서도 여러가지를 느꼈다. 사용자 경험에 이토록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 오준서

혁신의 아이콘 Apple 본사 방문자 센터를 방문했다. 세계 최고 기업답게 하나의 마을처럼 드넓은 부지를 자랑했던 곳. 외부인에게 공개된 곳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다. 착하지 않은 가격에도 지갑을 열게 만드는 브랜딩의 창의성, 사업의 정수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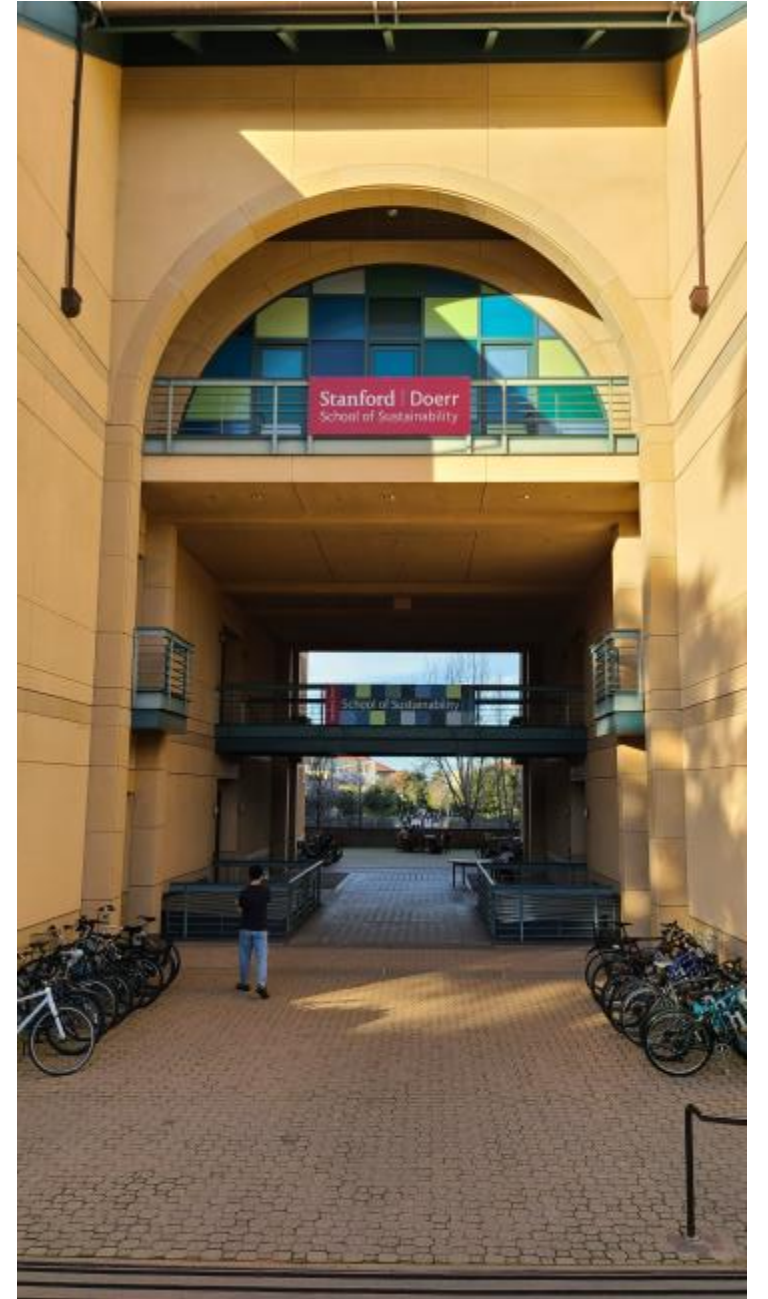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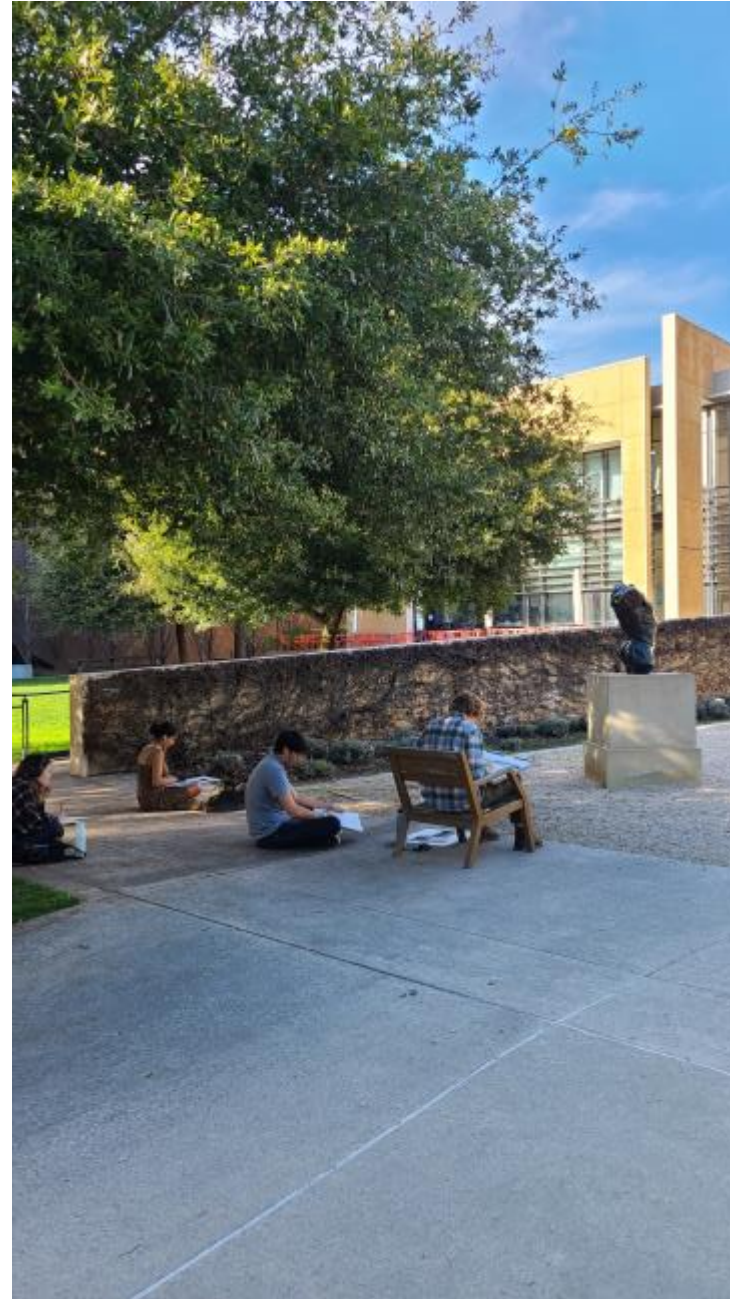
# Stanford University

미술 대학 및 공과 대학 건물, 도서관, 캠퍼스 전체 탐방  
재학생 Interview

## 서희찬

괜히 자연과 어울리는걸까?  
상위권 대학을 방문하며 느끼는 점은 광활한 캠퍼스 크기와 자연과 건물이 어울려 있다는 것이다.

단, 하루 방문하였지만 여기서 오늘 자연의 힘은 컸고 실제 캠퍼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실습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넓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 Stanford University

## 오준서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했다.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그곳의 환경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상상 이상이였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말도 안 되게 넓은 부지와 싱그러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잘 정돈된 건물들. 땅에 주저앉아 드로잉 스케치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혼자 다니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던 시간. 잠깐이나마 이곳에서 수학(修學)하는 기분을 느껴볼 수 있어 좋았다. 배움의 환경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새삼 체감했던 하루. 뛰어난 이들과 섞일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다.

## 김성준

창업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본다. 금전적 지원을 통한 지원을 통해 결과를 바라는 한국의 시스템과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캠퍼스의 전경에서 앙트레프레너십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마음껏 실수 할 수 있는 터전이 아니었던가.



# Google

Visito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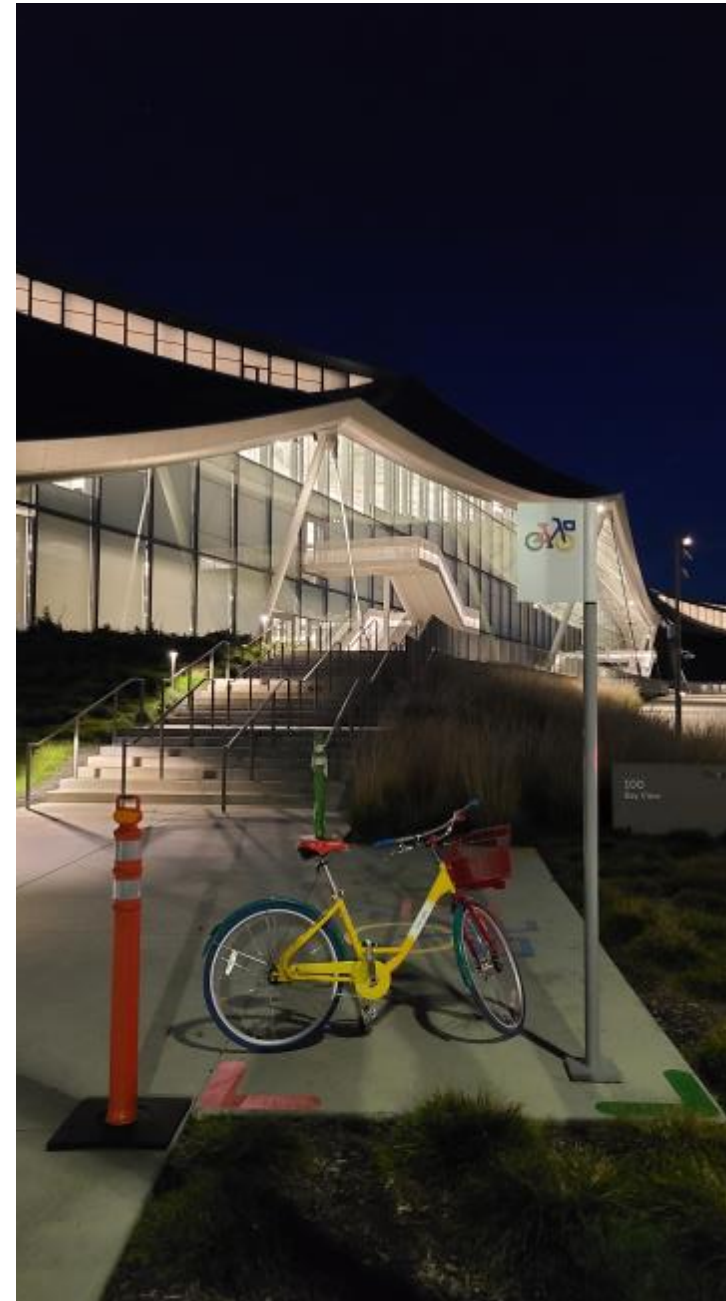
## 서희찬

조금 있다가 다시올께!

실제로 구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확장성과 기술성에 감탄을 지어내며 사용하고 있다. 이에 있어 커리어 중 한 곳을 구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방문하여 구글 직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곳의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커리어에 있어 하나의 정착점을 목표로 달려나갈 수 있어 좋았다.



# Google

## 김성준

혁신은 어디에서 부터 오는가, 광활한 구글의 부지에서의 경험은 혁신에 대해 고민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었다. 직원들을 위한 자전거와 시각적 자극을 통한 업무 몰입 환경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캠퍼스 내에서만 투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가 왜 세계에 중심에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 오준서

애플에 이어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 애플에 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구글. 건물 간 이동하는 직원을 위해 비치해둔 구글 자전거가 인상적이었다. 호스트가 있어야만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던 탓에 방문하지 못한 곳이 아쉬웠으나 애플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기에 더 많이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 자극이 필요한 순간 이곳을 떠올리게 될 것 같다.



## 꿈과 현실의 만남, 미국

25년이라는 시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영화, 문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으며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고, 개발자와 창업가들의 성지, 실리콘 벨리에 대한 동경 또한 키워왔습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 실리콘 벨리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꿈을 키워왔죠.

드디어 미국 땅을 밟는 순간, 상상 속의 미국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 다양한 문화, 개방적인 사람들, 그리고 천조국의 위엄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 1. 샌프란시스코: 낭만과 현실의 공존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골든 게이트 브리지와 케이블카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니 낭만적인 분위기와 현실적인 도시 분위기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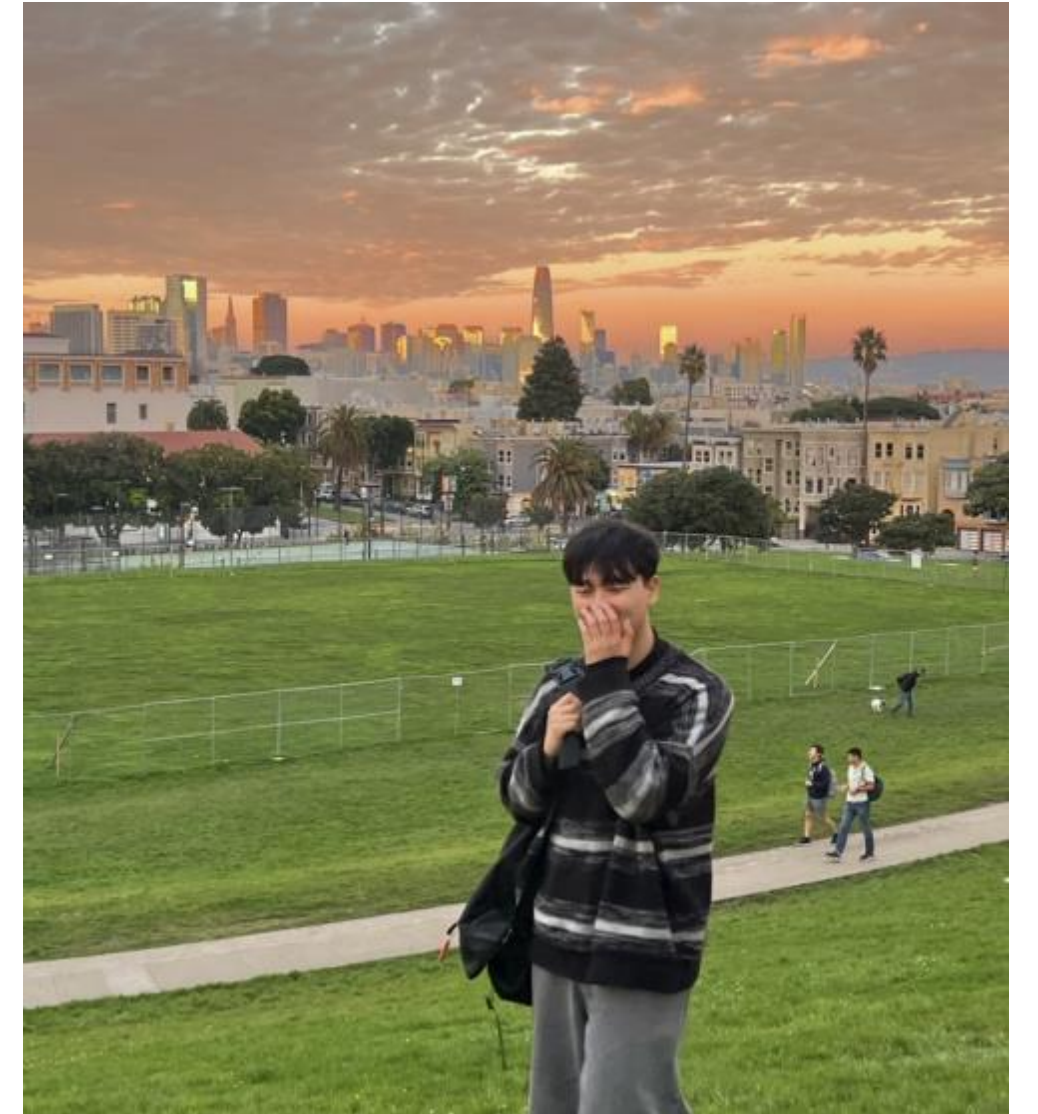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의 경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웠고, 케이블카를 타고 도시를 구경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며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느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물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가 비싼 편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물가에 다소 놀랐습니다.

### 2. 산호세: 실리콘 벨리의 중심

산호세는 실리콘 벨리의 중심지로,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해보니 꿈과 현실이 뒤섞인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리콘 벨리는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혁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 벨리는 경쟁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 외에도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LA를 방문하며 꿈에 있던 미국을 현실에서 만나 저의 시야가 확장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물안 개구리의 메아리

내여지껏 봐왔던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봐온 세상은 고향인 남양주였고, 학교가 있는 서울이었으며, 제가 사는 강동구가 전부였습니다. 미국을 가기 전, 미국은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리콘 벨리는 몰락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으로 병들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속에 들리는 소리를 사실로 치부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땐, 살면서 보지 못했던 풍경들과, 익숙하지 않은 내음에 대해 낯설음이 강했습니다. 여태 봐왔던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것들로만 세상을 정의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실리콘벨리에서, 이구형 박사님과 박태호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며,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과 미국은 다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남의 시선과 스스로 올려놓은 사회적 기준은 도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부터 돈에 쫓기며 창업은 사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취업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느냐며 스스로를 비교하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실리콘벨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결국 환경이 전부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세상은 전부도 일부도 아니라 티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안다고, 다른 곳들은 이렇거라고 치부할까요. 미국에서의 학술문화탐방을 마치며 느낀점은 우리는 경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내가 경험한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험하고 사유하며,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드넓은 세상 속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

2~3시간 거리 이동은 가깝게 느껴지는 넓은 땅 덩어리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가치를 판매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간 보고 겪은 시야가 아직도 한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창업 불모지 시절 머나먼 타지로 넘어와 외롭고 치열한 도전을 이어오셨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 문화와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담대한 목표를 꿈꾸는 반짝이는 눈빛을 느끼면서, 광활한 자연 속 녹음진 캠퍼스에서 수학(修學)하는 Stanford 학생들을 지켜 보면서, 세상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드넓은 부지와 건물들을 거닐으며 생각했습니다.

### Why not?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다짐, 나름의 패기어린 도전이 국내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나아가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택시 기사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가끔 택시도 운행하고, 플로리스트와 헬기 조종사의 삶까지 살고 계셨던.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삶을 엿보며 때로 스스로를 옥죄는 변명과 편견에 갇혀 있었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수많은 핑계들을 뒤로 한 채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저 낯선 이와와의 대화를 곱씹어보며 무의식 중에 달아오르는 땀, 저도 모르게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Global

미국 탐방을 통해 저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곧 전세계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개발되는 서비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글로벌 역량 강화 계획

저는 앞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서비스 개발: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능력을 가진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 개발: 교육, 의료, 환경 보호 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류 증진: 양국의 문화, 교육,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IT 기술 전문성 강화와 해외 경험 쌓고 글로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탐방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빠르게 실패하기

미국 학술탐방을 통해 배운 것은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가 정신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1년 앞에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과업을 생각하며 사력을 다해 무슨 일이든 실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엉망진창이더라도, 더 빠르게 실패하며 피드백을 통해 실패하는 사람으로써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선 미래를 걱정했으며, 실패를 두려워했으며, 계획만 세우며 전전긍긍하던 장면들은 인생의 허들로써 작용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며 학술 탐방을 가는 것이 제게 옳은 것일지 고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준과 스펙을 쌓으며 방학을 보내는 데, 내가 이래도 되는지 어김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막학기의 대학생보다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조타의 흔들림이 없다면, 느리더라도 나아간다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사람으로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중요한 가치는 '여유'였습니다. 급박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양질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why not'으로 'so what'으로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2주 다녀왔다고 뭘 알겠냐마는 묵묵히 내 길을 나아가며, 나의 관점을 만들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목표는 담대하게, 실행은 대담하게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취한다는 말에 언어에 대한 기본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배움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초를 벗어난 대화에서도 표현을 구사하고 경청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세워 보았습니다.

평상 시 보는 영상 매체 영어 자막을 항상 같이 시청하며 새로 알게 된 표현 곱씹어보기  
하루 한번 이상 뽀은 말 혹은 하고 싶었던 말을 외국어로 직역해보기  
외국인 친구에게 가끔 연락해서 안부 주고 받기  
국내외 외국인 친구와 소통 교류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도전을 국내로만 한정짓지 말고 국외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활권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해외 거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커리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들의 문화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협업 과정에서의 능률 향상 및 조직 용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택을 시도하여 질문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겉만 보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할 줄 아는 문화  
감사와 칭찬에 있어 관대한 표현 문화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고방식 문화

배울 만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최종 목표인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해 가는 커리어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실력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가겠습니다.

